

세무회계저널
제10권 제1호 2009년 3월 pp.249~277
한국세무학회

XBRL을 기반으로 자발적 공시를 행한 기업의 특성*

이정이** · 김이배*** · 김철환****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XBRL을 기반으로 자발적 공시를 행한 기업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Probit모형을 이용하여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한 상장된 제조기업(2004년 - 2006년)을 분석하였으며 유동성은 유동비율, 수익성은 순이익률, 시장관련변수로는 BIG4 감사여부 그리고 부채비율과 기업규모를 구조관련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XBRL을 기반으로 자발적 공시를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XBRL 도입 당시 우려되었던 도입비용 부담이 금융감독원의 소프트웨어 무상 제공 등으로 해결됨으로써, 기업규모가 작은 경우에도 비용 부담 없이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수익성이 낮을수록 XBRL을 기반으로 자발적 공시를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익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공적인 조사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과 재무정보 공개의 증가된 조치들을 더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도입 시기를 늦췄다는 것으로 보여 진다. 셋째,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XBRL을 기반으로 자발적 공시를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감시비용을 절감, 채권자의 필요 충족 그리고 자본시장에 채무 및 계약조건에 대하여 서비스할 능력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XBRL을 이용한 자발적 공시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 진다. 반면 대형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지의 여부와 유동성은 기업의 자발적 공시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장에 정보전달이 가능한 우량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우량기업들이 XBRL을 이용한 공시를 통해 기업이미지 제고와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정보 전달 등을 이유로 조기 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그 동안 XBRL의 도입배경과 도입효과 등을 이론적으로 다룬 국내연구와는 달리 자발적 공시를 행한 기업의 특성을 다루는 실증적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XBRL, 자발적 공시, 기업규모, 유동비율, 부채비율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본 연구의 내용에 대하여 유익한 조언과 심사를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안산1대학 세무회계과 강사, murasaki262@hanmail.net, 010-2719-0262, 제1저자

***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회계학과 전임강사, kyibae@duksung.ac.kr, 02-901-8276, 교신저자

**** 안보경영연구원 사업평가팀장, chkim1911@hanmail.net, 02-544-5926

논문접수일 2008년 4월

게재확정일 2009년 3월

I. 서 론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2003년 SK글로벌의 회계분식과 2002년 미국의 엔론(Enron)사태 등은 국내·외적으로 공시된 기업정보에 대한 정보이용자들의 불신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재무건전성과 경영의 투명성이 자본시장에서의 신용과 신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 번 인식시켜 주었다.

회계정보는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성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 정보가 정보이용자의 목적적합성, 신뢰성 그리고 비교가능성의 속성이 있어야 유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정보이용자가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 없이 쉽게 비교·분석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다루기 어려운 형태이거나 비교, 분석 그리고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면 정보가 가지는 본래의 가치를 지니기 어렵다.

현재 비재무정보를 포함한 기업의 재무정보 공시 및 보고 문제는 어떤 정보를 보고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의 전달 속도가 실시간의 개념으로 빨라졌으며, 정보의 제공도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져 이해관계자에게 쉽게 상호 전달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정보제공자와 정보수요자간의 각각 다른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로 다른 형태의 입력과 출력 등으로 기업정보의 전달과 교환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정보의 공급(Information Supply Chain)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범세계적인 표준 언어인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이 탄생하게 되었다.

1999년 처음으로 만들어진 XBRL은 전자인식기호(일종의 전자태그)를 이용해 계정과목의 대차관계, 계산방식, 표시순서 등을 정의해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신속하게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국가간 교환을 쉽게 하기 위한 국제표준 전산 언어이다.

XBRL을 도입하면 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생기는 오류와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재무제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시간이 종전 2개월에서 당일로 단축될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같은 감독기관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기업의 재무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기업분석과 감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시험 가동 중이며, 일본 금융청, 유럽 은행감독위원회(CEBS)등에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코스닥 14개 기업, 2004년에 코스닥 스타지수 기업 30여 개를 대상으로 처음 XBRL이 적용되었고, 2007년 10월에는 공시기업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자본시장 분야에서 XBRL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¹⁾

정보제공자인 기업으로부터 최종 정보이용자에 이르기까지 재무정보 공급과정의 모든 참여자들간의 협조가 크면 클수록 XBRL의 효과는 커진다. 그러나 XBRL의 도입 초기라서 아직 XBRL 도입에

1) 금융감독원(2007), “상장기업 재무정보의 국제표준 보고방식(XBRL) 시행”

크게 적극적이지 않은 기업과 조직들이 많다. 기업이 XBRL의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 중에는 초기 비용발생 문제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박선영(2006)에 의하면 사업보고 관할지역이 여러 곳인 대기업의 경우에는 상이한 사업보고절차를 통합할 수 있으므로 XBRL 도입의 이점이 많으며, 특히 XBRL은 국제적인 재무보고표준이므로 다국적기업은 XBRL 도입으로 상당한 재무보고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에 기업들은 XBRL을 도입할 유인이 높다. 하지만 단일의 재무보고 관할지역내의 기업들은 자본비용 감소 등 장기적인 효익이 있어도 초기 비용부담으로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는 2006년 1월에 XBRL International의 잠정적 회원에서 정회원국으로 승격되었고, XBRL KOREA는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영국, 호주 등 선진국으로 구성된 12개 정회원국으로 진입하게 되었다.²⁾ 동시에 XBRL International Steering Committee 멤버지위를 가지게 되어 국제사회에서 XBRL의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입 초기단계이므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물론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별 사례와 연구결과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특징에 맞는 분석 및 사례는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도입 초기단계로 인해 XBRL도입 효과에 따른 실증분석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런 이유로 XBRL을 소개하기 위해서 외국논문과 XBRL International이 제공하는 원천적인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XBRL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통해 2006년 9월부터 금융감독원의 DART시스템을 통해 자발적으로 공시에 참여하고 있는 180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자발적 공시에 참여중인 회사들의 기업특성을 Probit 모형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선행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연구방법을 제시하며, 제Ⅳ장에서는 제Ⅲ장에서 제시된 모형에 대하여 실증분석한 후 이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해석한다. 그리고 제Ⅴ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에 대한 의의를 보여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이론적 배경

가. 웹 재무정보공시의 방법과 내용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화기술은 정보를 나타내는 방법에 따라 정적기술, 멀티미디어기능, 대화방식 및 지식경영으로 분류된다.

정적기술에는 CD-ROM, 전자종이(Electronic Paper), HTML 등이 있고, 멀티미디어 기능에는 플러그인(Plug-ins), 멀티미디어, 3D, Push 등이 있다. 최근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대화방식 및 지식경

2) XBRL Korea 2006-2007 보도자료 참조

영에는 데이터베이스, 검색도구와 메타데이터(Metadata), 자바스크립트(Javascript, Java, Active/X), 인텔리전트 에이전트(Intelligent Agent),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등이 있다.

<표 1>은 정보화기술의 내용과 재무공시에서의 활용 정도를 요약하고 있다.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도구는 HTML이다. HTML의 정보는 하이퍼링크의 과정을 거쳐 다시 활용되거나 검색엔진의 인덱스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HTML은 특정 정보의 특성들을 추출하기 어렵고 HTML의 정보는 정적이다. 멀티미디어는 재무공시보다 기업홍보 등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주요 재무제표와 재무비율로 구성된 웹 재무정보공시에서 멀티미디어의 사용은 경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 재무공시의 멀티미디어화는 다운로드 및 조작의 멀티미디어화를 수반하기 때문이라고 신용우(2006)는 보고하였다.

나. DART 시스템의 도입효과 및 한계점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 자료에 대한 편리한 정보제공과 기업 정보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2001년 1월 1일 전자공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리고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을 기반으로 하는 DART(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시스템을 개발하였다.

DART시스템은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는 기업의 공시서류가 제출되는 즉시 인터넷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기업공시 시스템이다. 금융감독원은 DART의 도입으로 인해 2001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전자공시를 통한 일일평균 공시서류 조회건수는 전년 대비 66.8%이상 증가한 62,035건으로, 전자공시시스템이 투자자에게 신속하고 깊이 있는 정보제공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전자공시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나타난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시자료의 주거조회 시대가 개막되었다. 누구든지 편리한 장소와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모든 공시 자료의 열람이 가능한 것이다.

<표 1> 정보화기술의 내용과 재무공시의 활용정도

정보화기술		내 용	재무공시에서의 활용
정 적 기 술	CD-ROM	•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분배할 수 있음. • 안정성이 뛰어남	• 회계정보를 담은 CD의 배포. • 값은 싸지만 이용자는 물리적(Physical)접근수단을 사용함.
	전자종이	• 컴퓨터스크린에 나타나는 언어 (Acrobat, MS Word)	•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쇄물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Acrobat을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함. • 조작을 위하여 반드시 다운로드가 필요하고 Acrobat와 PDF는 Adobe회사가 통제하는 폐쇄시스템임.

〈표 1〉 정보화기술의 내용과 재무공시의 활용정도 (계속)

정보화기술		내 용	재무공시에의 활용
정 적 기 술	HTML	• 간단한 프로토콜로 컴퓨터 간의 의사소통 표준임(Client to server). • 제한된 태그셋(tagset)을 사용하므로 누구나 쉽게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음.	• 이용자는 하이퍼링크로 쉽게 재무제표 간 이동을 할 수 있음. • 사이트 맵이나 인덱스를 사용한 검색에서 종종 미아 (lost in cyber space)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단점이 있음.
	멀티미디어 기능	• Plug-ins • 광범위한 데이터를 쉽게 처리함. • 애니메이션을 허용함. • Multi media • 수많은 종류의 멀티미디어가 가능함. • 오디오, 비디오, 사운드, 그래픽, 애니메이션의 결합 • 3D • 이용자는 3차원 공간으로 구성된 자료에 접할 수 있음.	• 많은 기업들이 이용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있음. • 조작을 위하여 다운로드해야 하는 단점이 있음. • 주로 연례이사회, 이익발표 등의 내용을 오디오와 비디오를 사용하여 배포함. • 인터넷 방송 및 재무 분석가와 실시간 토론에도 이용됨. • 보안 및 경제성 등의 이유로 재무공시에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음.
데 이 터 방 식 지 식 경 영	데이터베이스	• 기업의 홈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연결이 가능함. • 검색엔진으로 데이터베이스 내부를 볼 수 없는 것과 보안 등이 문제임.	• 이용자가 직접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방식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임.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가능케 하는 많은 인터페이스들이 존재함.
	검색도구 메타데이터	• 검색엔진들은 한 번의 검색으로 너무 많은 자료를 찾아내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움.	• 현재의 검색엔진으로 특정 기업의 재무제표를 찾아내기 어려움. • 합의된 메타태그를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특정 재무제표를 쉽게 찾아낼 수 있음.
	자바스크립트	• 목표 지향적 인터넷 프로그램언어로 C++에 바탕을 두고 있음.	• 자바 애플릿은 이용자로 하여금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선택된 자료만을 추출할 수 있게 함.
	인텔리전트 에이전트	• 인공지능에 바탕을 둔 것으로 미리 결정된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함.	• 전자상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EDGAR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에서 재무비율의 산정에 이용되고 있음.
	XML XBRL	• 차세대 HTML로 데이터관계를 나타낼 수 있음. • 이용자가 데이터를 쉽게 조작할 수 있음.	• 새로운 언어지만 재무공시의 표준 언어로 될 가능성이 매우 큼.

둘째,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었다. 기존의 서류제출방식에서 전자식 제출방식으로 바뀌면서 페이퍼레스(paperless)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공시자료의 방문제출 및 열람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었다.

넷째,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제고되었다. 서류를 제출할 때 접수는 물론 접수여부의 확인 등 처리과정 일체를 완전 전산화하여 오프라인 방식으로 행해온 신고와 접수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업무의 투명성을 높였다.

다섯째,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공시자료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신속하게 제공됨으로써 기업경영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감독이 강화된 것이다.

여섯째, 정보의 공급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을 통한 제출로 공시의무자가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지 않고 모든 공시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절감되었다. 또한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공인회계사 등 3개 기관에 각각 제출하던 동일서류를 금융감독원 한곳으로 접수창구를 일원화하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 전체 공시규모는 경영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공시의무 부과 그리고 공시대상 기업의 확대 등으로 공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시서류 서면제출에 따른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 및 정보의 신속공시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DART시스템을 도입하고 시행한 이후 기업 및 투자자의 이용이 일반화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는 금융감독원의 발표와는 달리 DART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데이터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DART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제공받는 기관에서는 이를 재가공하기 위하여 자체 시스템이나 보고형식에 재입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의 경우 기업분석을 위해 DART시스템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를 Excel에 재입력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왔다.

둘째, 데이터 분석 및 비교가 불가능하다. DART시스템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는 전자공시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기업재무비율, 업종별 분석, 산업간 비교 등 기업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재입력, 재가공 해야 한다.

셋째, DART시스템은 기업의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활용도가 전자공시에 그치고 있다.

넷째, DART시스템은 내재적으로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DART시스템 개발 당시에는 최상의 기술로 개발되었으나, SGML의 내재적 단점으로 인해 정보의 취급비용이 증가하게 되었고 국제적인 표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국제적인 표준으로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XBRL도입을 위하여 SGML기반의 DART를 XBRL로 변환하고 있으며 Korean GAAP Taxonomy와 함께 2007년 10월 전면시행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며 투명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한 심사와 심층적인 분석으로 투자자를 보호하여 대외신인도 제고와 DART의 신뢰성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다. 재무정보보고의 한계와 XBRL의 탄생

전통적인 기업재무정보 보고의 문제점은 정보제공자의 측면과 수요자의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보제공자는 금융기관과 감독기관을 포함한 정보이용자 등의 수요에 맞추기 위하여 동일한 정보를 수없이 다양한 양식과 형태로 가공하여 전달하고 있으며, 정보 수요자 또한 제공받은 정보를 자신의 응용 프로그램과 분석도구에 맞는 형태로 재입력, 또는 변환 재처리 하고 있다. 기업정보가 이해되고 비교·분석 하는데 불투명하고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면 투자자들은 투자를 포기하거나 불분명한 이차적 정보에 의지하여 투자 위험을 크게 부담하게 된다. 이는 기업내부의 의사결정권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의사결정력의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

기업정보유통사슬(Business Information Supply Chain)에서의 이러한 문제는 이해관계자들 간에 일관된 규칙과 약속에 의하여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 이는 곧 유용한 정보의 필수사항인 정확성, 완결성, 유연성, 신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러한 목표로 탄생한 언어가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이다. 1999년 XFRML(eXtensible Financial Reporting Mark-up Language)로 탄생된 XBRL은 복잡한 기업정보가 효율적으로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개념에 재무보고서 개념을 적용한 범세계적인 표준 언어이다. XBRL은 하드에 종립적이며, 시스템 보고양식의 제약 없이 재입력과 변경이 필요하지 않고, 정보의 종류도 재무정보 및 비재무정보를 모두 수용하여 그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신용우(2006)).³⁾

라. XBRL의 개념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은 기업의 비즈니스 리포트에서 복잡한 기업 정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생성, 교환, 비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XML을 기업 보고(Business Reporting) 영역에 응용한 표준이다.⁴⁾

현재 기업의 대내·외적 보고는 회계 모델에 의한 재무제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XBRL 또한 일차적으로는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정보에 그 성격과 내용을 설명하는 Data-Tagging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표준이 정해지고 있다.

XBRL은 로열티가 없는 스펙이며, 전 세계 170여 개의 기업, 협회, 정부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XBRL International)에 의해 개발되었다. XBRL 1.0 스펙은 2000년 7월 31일 발표되었고, 2001년 12월 14일에 2.0 스펙이 발표되었다.

인터넷을 통하여 기업정보의 유통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이미 전자공시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질적인 면에서 문서를 통한 기업정보의 유통은 정보의 효율적인 검색, 생성, 분석 면에서 전통적 문서형태와 크게 다른 점이 없고 사용하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3) 2002년 이후 XBRL의 국제적인 기구인 XBRL International은 전 세계적인 XBRL 적용을 위하여 국가별 Taxonomy 개발, 관련 툴의 개발, 전자공시시스템에 XBRL을 도입하려고 함.

4) 기업 보고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재무제표, 재무정보 및 일반적인 원장 처리와 연간, 분기간 재무보고서와 같은 재무정보를 비롯하여 기타 비재무정보를 포함하는 기업 내의 정보 보고를 의미함.

XBRL을 통하면 모든 문서의 정보에 의미 있는 태그를 삽입하여 정보를 보다 완전하고 쉽게 표현할 수 있어서, 기업 정보의 유통에 관한 관계자인 투자자, 기업가 등 모든 구성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또한 XBRL을 도입한다고 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회계원칙 등이 변화하거나 추가적인 회계원칙을 세워야 하는 등의 불편이 없는 것도 커다란 장점이 있다(나영진(2003)).

마. XBRL도입이 기업정보유통에 미치는 효과

XBRL로 기업정보가 표현되어 있으면 XML형태의 포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과 교환이 쉽고 상이한 플랫폼 간에도 쉽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 산업, 회사별로 일관된 명명규칙과 데이터 색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비교, 매핑, 변환하는 범용적인 툴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원칙과 회계실무의 상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이해관계자에게 고품질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XBRL 포맷으로 인해 여러 이해관계자를 위한 표준화되고 자동화된 보고의 작성이 가능해져 재입력으로 인한 오류감소와 작업시간 비용의 단축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XBRL은 재무 보고 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의 측면에서도 현재의 이해 관계자나 잠재적 이해관계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XBRL 형태의 기업정보를 주고 받는 창구 역할은 표준화된 웹 서비스(Web Service)로 구현하여 기업정보를 단순 보고(publishing)하던 기존의 기업정보 단순 보고모델에서 적극적으로 보고하는 방송(broadcasting)모델로 혁신적인 전환을 꾀할 수 있다. 또한 웹 서비스 호출을 통해 웹 서비스 소비자는 원하는 최신의 기업정보를 받아보는 서비스나 분석, 검증 서비스 등 다양한 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웹 서비스 제공자는 기업정보의 적극적인 Broadcasting이 가능하고 다양한 부가적인 웹 서비스 제공을 통한 기업 정보유통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정보 표현을 위한 기반 인프라로서의 XBRL과 비즈니스 경계에서의 기업정보 제공을 위한 웹 서비스의 결합은 기존 기업정보 유통프로세스의 혁신적인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

XBRL은 1차적으로 재무회계보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XBRL은 기업에 관한 정보, 특히 재무적 정보의 실시간 보고를 가능하게 한다. XBRL이 가져올 변화의 2차적인 영향은 비재무적 정보의 보고, 내부통제, 감사, 회계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진행될 것이다.

XBRL의 도입의 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의 실시간 처리 및 보고(Real time Information Processing & Reporting)이다. 재무제표와 같은 기업의 재무적 정보는 공표되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표된 정보는 이미 과거의 정보가 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XBRL이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 및 현장회계와 결합하면 기업 활동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서부터 정보의 처리 및 보고까지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지금까지 명목적으로만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정보의 적시성(timeliness)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정보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Business Reporting Data)이다. XBRL은 보다 광범위한 정보가

용자들이 기업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Mobile Technology) 등 잘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은 정보의 접근과 유통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시장의 일반투자자들은 과거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빠른 속도로 기업의 정보를 접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를 일반투자자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던 증권분석가 등 특수한 지위에 있던 정보이용자의 정보우위를 그만큼 감소시켜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 현상(Information Asymmetry)을 완화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일반투자자와 전통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던 정보이용자의 격차가 줄어들고 정보의 민주화현상이 촉진된다.

셋째, 상시감사와 시스템감사이다. 정보의 실시간 보고가 가능해지면 정보의 공급자와 이용자 사이의 정보교류가 훨씬 빈번해진다. 일정한 기간마다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현재의 정보전달방식에 변화가 생겨 기업의 결산주기는 점차 짧아질 것이다. 또한 회계자료의 원천에 대한 건전성 검증, 건전한 내부통제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감사는 필수적이며 그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증서비스(Assurance Service)에 대해 회계정보의 표준화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업내부의 재무적, 비재무적정보 보고시스템의 구축이다. XBRL은 기업내부의 정보이용자에게 맞춤보고서(Custom Reporting)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조직의 성과에 관한 정보가 표준화되어 저장되므로 각 관리자의 정보요구에 따라 필요한 정보항목을 원하는 양식(format)으로 작성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도 실시간으로 운영될 수 있다. 실시간 정보처리 및 보고는 비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통제를 보다 원활하게 하고 구성원들이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충실하게 노력하도록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섯째, 실시간 경영(Real time Management)이 가능하다. XBRL에 의한 내부보고정보는 실시간 경영을 촉진시킨다. 기업의 각 부문별, 지역별, 생산라인별 성과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요약되면 정보의 분석과 전략적 대응책의 수립에 경영자의 관심이 옮겨진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기업의 핵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을 집중하고 가치경영(Value Management)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여섯째, 기업 간 거래 처리의 변화로 정보교류가 원활하게 된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를 도입하여 자원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 경영을 달성하려 한다. 그러나 전사적 자원관리의 효과는 해당 기업의 울타리를 벗어나 다른 기업체까지 파급되지는 못한다. 기업들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정보교류가 원활하여야 한다.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해서는 정보흐름을 표준화하는 XBRL의 도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일곱째, 회계담당자의 역할변화이다. 미래의 회계담당자는 전표를 모으고 거래 자료를 입력하는 단순한 작업은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단순한 거래의 입력은 현장의 업무담당자가 처리하고 기업의 회계담당자는 회계자료를 분석·예측하여 경영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 선행연구의 검토

XBRL 목표 중의 하나는 규격화된 국제 보고서 포맷으로부터 정보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회계정보의 공시와 정보 비대칭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의 결과를 보면 공시제도의 개선이 자본시장에 존재하는 정보 비대칭 현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미국 등 XBRL International 초기회원들과 자발공시를 하지 않은 다른 집단 간의 차이를 보임으로 정보 비대칭의 현상을 감소시켰다.

Lang and Lundholm(1993), Wallace et al.(1994), Camfferman and Cooke(2002), Alsaed(2005), 그리고 Ronald and Som(2007)는 자발적 기업공개와 관련한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독립적 변수를 성과관련 변수로서 유동성과 수익성, 시장관련 변수로서 회계감사 회사의 형태 그리고 구조관련 변수로서 기업규모와 차입경영의 세 가지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첫째, 성과관련 변수에 대한 연구이다.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할 때, 정보 비대칭은 자본시장 참여자간의 거래에 역선택(Adverse Selection)⁵⁾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Glossten and Milgrom(1985)은 이러한 역선택은 주로 주식시장거래의 유동성을 줄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잠재적 참여자가 주식거래를 꺼리게 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거래된 주식들은 본래의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가 형성된다고 분석하였다.

기업의 기업 정보에 대한 공시수준(Disclosure Level)을 높이면, 증가된 공시수준은 자본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정보 비대칭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고 Diamond and Verrecchia(1991)와 Baiman and Verrecchia(1996)는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기업의 공시수준과 시장 유동성간의 양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Cooke(1989)는 회사 재무상태의 유동성이 높을수록 정보공개에 따른 유인으로 나타나 정보공개가 유용하다고 분석하였으며, 또한 Camfferman and Cooke(2002)는 네덜란드 기업의 경우 유동성과 자발공시가 많아질수록 시장과 기업 간에는 양(+)의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Wallace et al.(1994)은 유동성과 정보공개 사이에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Singhvi and Desai(1971)는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보다 높은 이익률을 가진 회사는 투자자를 설득하고 관리적 보상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부가적인 정보를 공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Lang and Lundholm(1993)과 Camfferman and Cooke(2002)는 회사공개와 이익률간의 상관관계는 불분명하다고 보고하였다.

XBRL을 기반으로 한 자발공시에 참여한 회사들은 그들의 재무상태를 시장에 공개함으로써, 자발공시에 참여하지 않은 회사들보다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보여줌으로써 더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Ronald and Som(2007)은 보고하였다.

둘째, 시장관련 변수에 대한 연구이다. 우리나라의 회계감사회사는 4개의 대형회사와 그 이외의

5) 본 연구에서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을 비대칭정보에 기초한 잘못된 의사결정이라고 정의함.

회사들로 나누어져 있다. 회계감사형태와 기업의 공개 기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보면, Camfferman and Cooke(2002)는 영국기업들의 자발적 공개와 회계감사 형태와의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Wallace et al.(1994)는 스페인 공기업의 연구에서 연간 보고서의 내용과 회계감사의 크기와 내용 사이의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반면에, Wallace and Nasar(1995)는 홍콩기업들 사이에 정보공개 수준과 회계감사형태 사이에 상당히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셋째, 구조관련 변수에 대한 연구이다. Lang and Lundholm(1993), Wallace et al.(1994), Camfferman and Cooke(2002), 그리고 Alsaced(2005)의 선행 연구에서는 자발적 공개와 부채비율과 기업규모를 구조관련 변수로서 포함시켰으며 본 연구에서도 사용하여 분석한다. Jensen and Meckling(1976)은 높은 부채비율을 가진 기업들은 채권자들에게 총괄적인 수준의 공개를 시행함으로써 연관된 감시비용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Malone et al.(1993)은 Jensen and Meckling(1976)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이화득·육근구(2004)는 2000년에 재무보고가 반기보고에서 분기별보고가 추가된 후, 공시수준의 변화와 정보효과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분기보고를 시행한 이후 반기보고의 정보효과가 분기보고를 시행하기 전보다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기업특성을 고려한 분석결과, 비기대이익의 크기와 기업규모가 클수록 정보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공시기간은 정보효과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Cooke(1989), Botosan(1997), 그리고 Camfferman and Cooke(2002)는 기업규모와 기업공개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김병호(1996)는 규모가 작은 기업과 큰 기업을 비교한 결과,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규모가 큰 기업들에 비하여 비정상적인 수익의 상대적 분산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공시 이전의 정보의 유출량이 기업의 규모와 비례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III. 연구방법

1. 가설의 설정

자산의 유동성은 단기 부채를 지불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업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기업이 단기부채를 지급하려면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거나, 단기간 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기업공개를 하게 되면 투자자를 비롯한 의사결정자들은 단기지급능력에 따른 유동성을 평가할 것이며, 유동성이 낮은 기업은 기업공개에 따른 투자회피나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을 가질 것이므로 기업공개에 소극적일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은 투자자를 비롯한 잠재적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공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XBRL을 기반으로 한 자발공시에 참여한 회사들은 재무적 유동성과 수익성이 높을 것이며 이는 기업의 양호한 재무상태를 나타나게 된다. 자발공시는 채권자와 자금 조달자 등의 이해관계자들에

계 유동성에 따른 단기 지급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평균보다 높은 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은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발적 공시에 참여 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이 ‘가설 1’과 ‘가설 2’를 설정한다.

H1 : 기업의 유동성과 XBRL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 공시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H2 : 기업의 수익성과 XBRL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 공시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기업의 경우 수탁책임보고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여길 것이고, XBRL에 따른 자발적 공시에도 참여적일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기업은 자발적 공시에 문제가 없다고 여길 것이며, XBRL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 공시에 참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XBRL을 기반으로 자발적 공시를 하는 기업과 대형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는 기업 사이에는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 3’을 설정한다.⁶⁾

H3 :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과 XBRL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 공시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중개이론은 부채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은 채권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기업들의 채권자들은 담보물, 상환기금, 최소 근저당 설정권 및 다른 형태의 재보장 장치를 요구하면서 기업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높은 부채비용의 회사는 감시비용을 절감하고, 채권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자본시장에 채무 및 계약조건에 대하여 서비스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차입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보다 자발적 공시에 참여하여 더 많은 재무정보를 공개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또한 규모가 큰 기업들은 여러 이유들로 인하여 더 많은 재무정보를 공개하려는 경향이 있다. 더 많은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새로운 자금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여길 것이며, 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공시에 대한 압력이 클 것이므로 자발적 공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기업의 부채비용과 기업규모는 XBRL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 공시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 4’와 ‘가설 5’를 설정한다.

H4 : 기업의 부채비용과 XBRL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 공시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H5 : 기업의 규모와 XBRL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 공시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XBRL을 기반으로 자발적 공시를 행한 기업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모형은 유동비율, 순이익률, BIG4 감사여부, 부채비용, SIZE를 독립변수로 이용한다.

6) 우리나라의 회계법인중 삼일, 삼정, 안진 그리고 한영회계법인을 Big4라고 지칭함.

독립변수인 유동비율(LID_t)을 통하여 ‘가설 1’을, 순이익률($INCOME_t$)을 통하여 ‘가설 2’를, 대형 회계법인 감사($BIG4_t$)를 통하여 ‘가설 3’을, 부채비율(LEV_t)을 통하여 ‘가설 4’를, 기업규모($SIZE_t$)를 통하여 ‘가설 5’를 검정하고자 한다. LID_t 는 기업의 유동성과 자발적 공시 사이에는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검증을 위한 것으로서 유동비율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INCOME_t$ 은 기업의 수익성과 자발적 공시 사이에는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검증을 위한 것으로서 순이익률을 통하여 측정한다. $BIG4_t$ 는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과 기업의 자발적 공시 사이에는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검증을 위한 것으로서 국내 4대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지를 더미변수로 사용하여 측정한다. LEV_t 는 부채비율과 자발적 공시 사이에는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검증을 위한 것으로서 기업의 부채비율을 통해 측정한다. $SIZE_t$ 는 기업규모와 자발적 공시 사이에는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검증을 위한 것으로서 기업규모는 자산총액에 자연로그값을 취해 표준화하여 측정한다.

$$\text{모형} : DIS = a_0 + a_1 LID_t + a_2 INCOME_t + a_3 BIG4_t + a_4 LEV_t + a_5 SIZE_t + \varepsilon_t$$

DIS	: 자발적 공시에 참여한 회사=1, 아니면 0
LID_t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times 100(\%)$
$INCOME_t$	: 순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 $\times 100(\%)$
$BIG4_t$	: 대형회계법인(BIG4)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면=1, 아니면 0
LEV_t	: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times 100(\%)$
$SIZE_t$	: 자산총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ε_t	: 잔차항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DIS 는 자발적 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1, 아니면 0으로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기업의 유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LID_t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times 100(\%)$)와 수익성을 측정하기 위한 $INCOME_t$ (순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 $\times 100(\%)$)를 사용하였다.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의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은 1, 아닌 기업은 0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BIG4_t$ 의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기업구조와 관련한 독립변수로 LEV_t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times 100(\%)$)와 $SIZE_t$ (기업의 규모=자산총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를 사용하였다.

3. 표본선정

본 연구에서는 <표 2>와 같이 2006년 9월부터 2007년 6월까지 1차 시험 가동기간 동안 금융감독원의 DART 시스템에 XBRL을 기반으로 자발적 공시를 행한 366개(기업/연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2〉 XBRL을 기반으로 자발적 공시를 행한 전체 표본

(단위 : 기업/연도)

공시일자	유가증권시장(KSE)	코스닥시장(KSQ)	합 계
2006년 9월	55	16	71
2006년 10월	5	2	7
2006년 11월	74	23	97
2006년 12월	20	4	24
2007년 1월	1	4	5
2007년 2월	11	2	13
2007년 3월	63	43	106
2007년 4월	8	4	12
2007년 5월	13	15	28
2007년 6월	3	0	3
합 계	253개(기업/연)	113개(기업/연)	366개(기업/연)

위의 366개(기업/연) 중에서 분기, 반기, 결산 재무제표를 중복하여 보고한 유가증권시장의 115개(기업/연), 코스닥시장의 45개(기업/연), 금융서비스업의 26개(기업/연)를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가설검정에 이용한 표본기업 현황

(단위 : 기업/연도)

구 분	유가증권시장(KSE)	코스닥시장(KSQ)	합 계
전체 상장기업수	595	926	1,521
XBRL을 기반으로 자발적 공시를 행한 기업	253	113	366
분기, 반기, 결산 재무제표 중복회사	(115)	(45)	(160)
금융서비스업	(26)	(0)	(26)
표본대상(기업/연)	112	68	180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재무제표자료 데이터베이스인 KIS-FAS에서 구했으며, XBRL을 기반으로 자발적 공시에 응한 기업의 자료는 금융감독원의 DART System을 통하여 구하였다.

그리고 표본대상 180개(기업/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3년간의 자료를 수집하여 가설검정에 이용하였다

IV. 실증분석

1. 전체 표본에 대한 기술통계

<표 4>는 본 연구에서 이용되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이다. 기업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유동비율과 구조관련 변수로 사용했던 부채비율, 기업규모의 평균값은 양의 값(+)을 나타낸 반면, 수익성을 알아보고자 했던 순이익률의 평균값은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표 4〉 기술통계

(단위 : %)

변 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LID_t	248.500	228.340	30.880	169.385	1694.88
$INCOME_t$	-1.373	27.380	-232.937	4.006	37.013
LEV_t	95.402	88.183	4.870	70.715	705.570
$SIZE_t$	18.222	1.304	15.737	17.993	22.850

표본크기 : 4,212개

LID_t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INCOME_t$: 순이익률 (=당기순이익/매출액×100)

LEV_t :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100)

$SIZE_t$: 자산총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표 5>는 XBRL을 기반으로 공시를 행한 기업 500개와 비공시 기업 3,712개의 주요변수 차이를 분석하였다.⁷⁾

두 그룹간의 t-test 결과에서는 LID (유동비율)과 $INCOME_t$ (순이익률), $SIZE_t$ (기업 규모)에서 유의적인 값을 보였고, 윌콕슨 순위합에서는 $INCOME_t$ (순이익률)과 $SIZE_t$ (기업규모)에서 유의적인 값을 보여 주었다.

7) 가설검정에 이용된 총 4,212개의 표본은 최초 표본대상기업에서 상·하위 1%의 이상치(outliers)를 제거한 것임.

〈표 5〉 공시 여부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분석

(단위 : %)

변 수	구 분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t-test	윌콕슨순위합
LID_t	비공시	250.4	232.7	30.8	169.9	1,694.8	1.79*	-0.22
	공 시	233.6	191.8	40.3	164.5	1,265.6		
$INCOME_t$	비공시	-1.7	28.0	-232.9	3.8	36.6	-2.79***	2.08**
	공 시	1.2	21.9	-214.6	4.6	37.0		
LEV_t	비공시	95.3	88.4	4.8	71.0	705.5	-0.10	-0.01
	공 시	95.7	86.6	6.1	68.8	552.4		
$SIZE_t$	비공시	18.1	1.2	15.7	17.9	22.8	-5.31***	5.73***
	공 시	18.5	1.4	15.9	18.3	22.6		

비공시기업 표본크기 : 3,712 개

공시기업 표본크기 : 500개

***, **, * : 각각 1%, 5%, 10%의 수준에서 유의적임(양측검정)

 LID_t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times$ 100) $INCOME_t$: 순이익률 (=당기순이익/매출액 $\times$ 100) LEV_t :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 $\times$ 100) $SIZE_t$: 자산총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표 6>은 전체 표본 4,212개에 대한 주요 변수간의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으로 XBRL을 기반으로 자발적 공시에 참여한 기업을 나타내는 변수인 DIS 와 $SIZE_t$ 와의 사이에는 1%의 유의수준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DIS 와 $INCOME_t$ 과 $BIG4_t$ 와의 사이에는 5%의 유의수준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⁸⁾

〈표 6〉 주요변수의 상관분석

변 수	DIS	LID_t	$INCOME_t$	LEV_t	$SIZE_t$	$BIG4_t$
DIS	1.000	-0.023	0.0357**	0.002	0.088***	0.034**
LID_t		1.000	0.042***	-0.462***	-0.241***	-0.047***
$INCOME_t$			1.000	-0.118***	0.202***	0.119***
LEV_t				1.000	0.163***	0.027***
$SIZE_t$					1.000	0.297***
$BIG4_t$						1.000

8) 본 표에 제시한 상관계수는 Pearson 상관계수로서 Spearman 상관계수를 구해 보았으나 큰 차이가 없었음.

- ***, ** : 각각 1%, 5%의 수준에서 유의적임(양측검정)
 DIS : 자발적 공시에 참여한 회사면 1이고 아니면 0
 LID_t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INCOME_t$: 순이익률 (=당기순이익/매출액×100)
 LEV_t :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100)
 $SIZE_t$: 자산총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BIG4_t$: 대형회계법인이면 1이고 아니면 0

2.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Probit 모형을 이용하여 XBRL을 기반으로 자발적 공시에 참여한 기업의 특성을 알아보는 유동비율, 순이익률, $BIG4$, 부채비율, 기업의 규모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은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독립변수로 이용된 각 비율이 자발적 공시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표이다.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SIZE$ 만이 1%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기업특성이 XBRL의 자발적 공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회귀분석결과는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자발적 공시에 적극 참여한다는 결과만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표 7> 기업특성이 자발적 공시 여부에 미치는 영향 (전체표본)

$$\text{모형 : } DIS = a_0 + a_1LID_t + a_2INCOME_t + a_3LEV_t + a_4SIZE_t + a_5BIG4_t + \epsilon_t$$

변 수	회귀계수	χ^2
a_0	2.8864	58.66***
LID_t	0.0001	0.54
$INCOME_t$	-0.0014	1.56
LEV_t	0.0003	0.76
$SIZE_t$	-0.0951	21.52***
$BIG4_t$	-0.0254	0.22
Log Likelihood	-1517.51	

- *** :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양측검정)
 DIS : 자발적 공시에 참여한 회사면 1이고 아니면 0
 LID_t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INCOME_t$: 순이익률 (=당기순이익/매출액×100)
 LEV_t :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100)
 $SIZE_t$: 자산총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BIG4_t$: 대형회계법인이면 1이고 아니면 0

<표 8>은 각 비율이 자발적 공시에 미치는 영향을 연도별로 분석한 표이다.

<표 8> 기업특성이 자발적 공시 여부에 미치는 영향 (연도별)

$$\text{모형} : DIS = a_0 + a_1 LID_t + a_2 INCOME_t + a_3 LEV_t + a_4 SIZE_t + a_5 BIG_t + \epsilon_t$$

변 수	2004년		2005년		2006년	
	회귀계수	χ^2	회귀계수	χ^2	회귀계수	χ^2
a_0	2.8191	19.37***	2.7021	17.24	3.1475	21.41***
LID_t	0.0003	1.25	0.0004	2.36	-0.0003	1.57
$INCOME_t$	0.0003	0.01	-0.0016	0.75	-0.0020	1.36
LEV_t	0.0002	0.09	0.0007	1.38	0.0001	0.06
$SIZE_t$	-0.0938	7.22***	-0.0906	6.54***	-0.1034	7.88***
BIG_t	-0.0316	0.11	-0.0282	0.09	-0.0174	0.04
표본크기	1,377		1,427		1,408	
Log Likelihood	-498.48		-509.62		-506.08	

*** :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양측검정)

DIS : 자발적 공시에 참여한 회사면 1이고 아니면 0

LID_t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INCOME_t$: 순이익률 (=당기순이익/매출액×100)

LEV_t :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100)

$SIZE_t$: 자산총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BIG_t : 대형회계법인이면 1이고 아니면 0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분석결과,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SIZE$ 만이 1% 유의수준에서 각각 -0.0938, -0.0906, 그리고 -0.1034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의 값을 보여서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자발적 공시에 참여한 것을 의미하여, 이는 김병호(1996)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다. 즉, 기업의 규모와 XBRL을 기반으로 자발적 공시를 행한 기업과는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5’를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부터 <표 12>에서는 전체표본에서 각각의 독립변수를 크기에 따라 구분하여, 즉 상위 50%, 25% 그리고 10%를 기준으로 자발적 공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표 9>에서는 LID (유동비율)의 각 비율이 자발적 공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유동비율을 상위 50% 기준($LID1$), 상위 25% 기준($LID2$), 상위 10% 기준($LID3$)으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 유동비율은 기업의 자발적 공시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SIZE$ (기업의 규모)는 <표 8>과 마찬가지로 각각 -0.1007, -0.1028, 그리고 -0.0974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유동비율이 자발적 공시 여부에 미치는 영향

$$\text{모형} : DIS = a_0 + a_1 LIDD1_t(2,3) + a_2 INCOME_t + a_3 LEV_t + a_4 SIZE_t + \epsilon_t$$

변 수	상위 50% 기준		상위 25% 기준		상위 10% 기준	
	회귀계수	χ^2	회귀계수	χ^2	회귀계수	χ^2
a_0	3.0101	66.43***	3.0678	72.32***	2.9274	67.99***
$LIDD1_t(2,3)$	-0.0007	0.00	-0.0445	0.75	0.1255	1.79
$INCOME_t$	-0.0014	1.58	-0.0014	1.38	-0.0014	1.62
LEV_t	0.0002	0.28	0.0001	0.09	0.0003	0.87
$SIZE_t$	-0.1007	26.37***	-0.1028	27.82***	-0.0974	25.24***
Log Likelihood	-1517.89		-1517.67		-1516.98	

*** :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양측검정)

DIS : 자발적 공시에 참여한 회사면 1이고 아니면 0

$LIDD1_t$: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이 상위 50%이면 1이고 아니면 0

$LIDD2_t$: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이 상위 25%이면 1이고 아니면 0

$LIDD3_t$: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이 상위 10%이면 1이고 아니면 0

$INCOME_t$: 순이익률 (=당기순이익/매출액×100)

LEV_t :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100)

$SIZE_t$: 자산총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표 10〉에서는 순이익률을 상위 50%, 25% 그리고 10% 기준으로 나누어서 자발적 공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10〉에서 보는 것처럼 순이익률을 상위 50% 기준으로 나누었을 경우에 -0.0969로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익성이 낮은 기업일수록 XBRL에 근거한 자발적 공시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규모는 유동비율을 백분위수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자발적 공시에 참여한다고 보여 진다.

반면, 유동비율(LID_t)과 부채비율(LEV_t)은 유동비율을 크기에 따라 분류한 결과와 동일하게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순이익률이 자발적 공시 여부에 미치는 영향

$$\text{모형} : DIS = a_0 + a_1LID_t + a_2INCOMED1_t(2,3) + a_3LEV_t + a_4SIZE_t + \epsilon_t$$

변 수	상위 50% 기준		상위 25% 기준		상위 10% 기준	
	회귀계수	χ^2	회귀계수	χ^2	회귀계수	χ^2
절편	2.9826	68.37***	3.0161	70.24***	2.7964	57.08***
LID_t	0.0001	0.71	0.0001	0.84	0.0001	0.26
$INCOMED1_t(2,3)$	-0.0969	3.22**	-0.0879	2.11	0.0767	0.71
LEV_t	0.0002	0.28	0.0003	0.57	0.0001	0.15
$SIZE_t$	-0.0980	25.68***	-0.1018	28.37***	-0.0898	20.56***
Log Likelihood	-1516.86		-1517.42		-1514.84	

***, ** : 1%,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양측검정)

DIS : 자발적 공시에 참여한 회사면 1이고 아니면 0

LID_t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times$ 100)

$INCD1_t$: 순이익률이 상위 50%이면 1이고 아니면 0

$INCD2_t$: 순이익률이 상위 25%이면 1이고 아니면 0

$INCD3_t$: 순이익률이 상위 10%이면 1이고 아니면 0

LEV_t :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 $\times$ 100)

$SIZE_t$: 자산총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표 11>에서는 부채비율을 통하여 부채비율이 XBRL에 근거한 자발적 공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부채비율을 상위 50%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만 5% 유의수준에서 0.1172로 양(+)의 값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XBRL에 근거한 자발적 공시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기업의 규모는 <표 9>와 <표 10>과 마찬가지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고 있다.

〈표 11〉 부채비율이 자발적 공시 여부에 미치는 영향

$$\text{모형} : DIS = a_0 + a_1LID_t + a_2INCOME_t + a_3LEVED1_t(2,3) + a_4SIZE_t + \epsilon_t$$

변 수	상위 50% 기준		상위 25% 기준		상위 10% 기준	
	회귀계수	χ^2	회귀계수	χ^2	회귀계수	χ^2
a_0	2.9147	62.50***	2.9540	64.31***	2.9301	63.44***
LID_t	0.0002	1.63	0.0001	0.49	0.0000	0.09
$INCOME_t$	-0.0013	1.41	-0.0014	1.66	-0.0016	2.02

〈표 11〉 부채비율이 자발적 공시 여부에 미치는 영향 (계속)

변 수	상위 50% 기준		상위 25% 기준		상위 10% 기준	
	회귀계수	χ^2	회귀계수	χ^2	회귀계수	χ^2
$LEVED1_t$ (2,3)	0.1172	3.91**	0.0679	1.17	-0.0344	0.17
$SIZE_t$	-0.1001	26.02***	-0.0988	25.33***	-0.0957	23.96***
Log Likelihood	-1516.06		-1517.43		-1517.93	

***, ** : 각각 1,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양측검정)

DIS : 자발적 공시에 참여한 회사면 1이고 아니면 0

LID_t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times$ 100)

$INCOME_t$: 순이익률 (=당기순이익/매출액 $\times$ 100)

$LEVED1_t$: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 $\times$ 100)이 상위 50%이면 1이고 아니면 0

$LEVED2_t$: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 $\times$ 100)이 상위 25%이면 1이고 아니면 0

$LEVED3_t$: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 $\times$ 100)이 상위 10%이면 1이고 아니면 0

$SIZE_t$: 자산총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표 12>는 기업의 규모를 각각 상위 50%, 25% 그리고 10% 기준으로 나누어 기업규모의 크기가 자발적 공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두 -0.2886, -0.2831, 그리고 -0.1561로 1% 유의수준에서 음(-)의 값을 보이며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XBRL에 근거한 자발적 공시에 참여한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12〉 기업규모가 자발적 공시 여부에 미치는 영향

$$\text{모형} : DIS = a_0 + a_1 LID_t + a_2 INCOME_t + a_3 LEV_t + a_4 SIZED1_t + \epsilon_t$$

변 수	상위 50% 기준		상위 25% 기준		상위 10% 기준	
	회귀계수	χ^2	회귀계수	χ^2	회귀계수	χ^2
a_0	1.2954	347.52***	1.2059	364.95***	1.1709	351.38***
LID_t	0.0001	0.46	0.0001	0.93	0.0002	1.69
$INCOME_t$	-0.0014	1.72	-0.0018	2.76**	0.0010	0.41
LEV_t	0.0002	0.42	0.0003	0.57	-0.0000	0.01
$SIZED1_t$ (2,3)	-0.2886	29.38***	-0.2831	24.93***	-0.1561	3.80***
Log Likelihood	-1515.13		-1517.73		-1523.61	

***, ** : 각각 1,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양측검정)

DIS : 자발적 공시에 참여한 회사면 1이고 아니면 0

LID_t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times$ 100)

$INCOME_t$: 순이익률 (=당기순이익/매출액 $\times$ 100)

LEV_t :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 $\times 100$)
 $SIZED1_t$: 자산총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 상위 50%이면 1이고 아니면 0
 $SIZED2_t$: 자산총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 상위 25%이면 1이고 아니면 0
 $SIZED3_t$: 자산총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 상위 10%이면 1이고 아니면 0

<표 13>부터 <표 15>는 추가분석으로 각 비율이 자발적 공시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표 13>은 유동비율을 상위 50% 기준으로 해서 자발적 공시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연도별로 분석한 표이다.

<표 13> 유동비율이 자발적 공시 여부에 미치는 영향 (연도별)

$$\text{모형} : DIS = a_0 + a_1 LIDD1_t + a_2 INCOME_t + a_3 LEV_t + a_4 SIZE_t + \epsilon_t$$

변 수	2004년		2005년		2006년	
	회귀계수	χ^2	회귀계수	χ^2	회귀계수	χ^2
a_0	2.9451	22.60***	3.0614	23.00***	3.0935	21.19***
$LIDD1_t$	0.0873	0.67	-0.0064	0.00	-0.0842	0.61
$INCOME_t$	0.0004	0.02	-0.0016	0.75	-0.0019	1.20
LEV_t	0.0001	0.05	0.0003	1.19	0.0002	0.11
$SIZE_t$	-0.1000	9.13***	-0.1035	9.30***	-0.1026	8.37***
표본크기	1,377		1,427		1,408	
Log Likelihood	-498.84		-510.91		-506.55	

*** :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양측검정)
 DIS : 자발적 공시에 참여한 회사면 1이고 아니면 0
 $LIDD1_t$: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times 100$)이 상위 50%이면 1이고 아니면 0
 $INCOME_t$: 순이익률 (=당기순이익/매출액 $\times 100$)
 LEV_t :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 $\times 100$)
 $SIZE_t$: 자산총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표 13>에서 보는 것처럼 기업규모만이 2004년, 2005년, 그리고 2006년 모든 연도에 1% 유의수준에서 -0.1000, -0.1035, 그리고 -0.1026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면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자발적 공시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나머지 독립변수에서는 유의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표 14>는 순이익률을 상위 50% 기준으로 해서 순이익률이 자발적 공시에 미치는 영향을 연도별로 분석한 것이다. 유동비율과 마찬가지로 기업규모($SIZE_t$)에서만 1% 유의수준에서 음(-)의 값을 보이면서 2004년, 2005년, 그리고 2006년에 걸쳐 모든 연도에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순이익률은 2005년도의 경우에만 5% 수준에서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14〉 순이익률이 자발적 공시 여부에 미치는 영향 (연도별)

$$\text{모형} : DIS = a_0 + a_1LID_t + a_2INCMEI_t + a_3LEV_t + a_4SIZE_t + \epsilon_t$$

변 수	2004년		2005년		2006년	
	회귀계수	χ^2	회귀계수	χ^2	회귀계수	χ^2
a_0	2.8434	21.67***	2.7849	20.14***	3.3243	26.00***
LID_t	0.0003	1.38	0.0004	2.70	-0.0002	1.43
$INCMEI_t$	-0.0509	0.29	-0.2002	4.51**	-0.0392	0.18
LEV_t	0.0001	0.02	0.0004	0.45	0.0002	0.09
$SIZE_t$	-0.0944	8.33***	-0.0890	7.13***	-0.1126	10.39***
표본크기	1,377		1,427		1,408	
Log Likelihood	-498.39		-507.79		-506.76	

***, ** : 각각 1,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양측검정)

DIS : 자발적 공시에 참여한 회사면 1이고 아니면 0,

LID_t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times$ 100)

$INCMEI_t$: 순이익률이 상위 50%이면 1이고 아니면 0

LEV_t :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 $\times$ 100)

$SIZE_t$: 자산총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표 15>는 부채비율을 상위 50% 기준으로 해서 유동비율이 자발적 공시에 미치는 영향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15〉 부채비율이 자발적 공시 여부에 미치는 영향 (연도별)

$$\text{모형} : DIS = a_0 + a_1LID_t + a_2INCMEI_t + a_3LEV_t + a_4SIZE_t + \epsilon_t$$

변 수	2004년		2005년		2006년	
	회귀계수	χ^2	회귀계수	χ^2	회귀계수	χ^2
a_0	2.8636	21.04***	2.7217	18.25***	3.2560	23.59***
LID_t	0.0003	1.23	0.0004	2.40	-0.0001	0.14
$INCMEI_t$	0.0002	0.01	-0.0016	0.82	-0.0016	0.94
LEV_t	0.0354	0.12	0.1212	1.37	0.2221	4.68**
$SIZE_t$	-0.0974	8.64***	-0.0926	7.50**	-0.1171	10.72***
표본크기	1,377		1,427		1,408	
Log Likelihood	-498.52		-507.79		-503.79	

***, ** : 각각 1,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양측검정)
 DIS : 자발적 공시에 참여한 회사면 1이고 아니면 0,
 LID_t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times 100$)
 $INCOME_t$: 순이익률 (=당기순이익/매출액 $\times 100$)
 $LEVEDI_t$: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 $\times 100$)이 상위 50%이면 1이고 아니면 0
 $SIZE_t$: 자산총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표 15>에서 보는 것처럼 기업규모($SIZE_t$)에서는 2004년과 2006년에 1%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5년에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부채비율은 2006년도의 경우에만 5% 수준에서 양(+)의 값으로 유의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V. 결 론

금융감독원에서는 2007년 10월 전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XBRL을 기반으로 한 재무제표 전면 공시를 앞두고 2006년 9월부터 기업들의 자발적 공시를 유도하였다. XBRL을 도입한 후에 나타나는 이점과 효과들을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미루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2007년 6월까지 XBRL을 기반으로 자발적 공시를 행한 기업들의 특성이 궁금해진다.

본 연구는 금융감독원의 DART 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의 자발적 공시에 참여한 기업들의 참여를 유발시키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자발적 공시에 참여한 기업의 특성을 실증분석하였다.

공시에 참여한 기업의 특성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유동성과 수익성, 그리고 기업의 구조와 관련하여 부채비율과 규모를 연관시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동성과 대형회계법인의 감사여부는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자발적 공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입경영비율을 의미했던 부채비율에서는 상위 50%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만 유의적인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수익성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XBRL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 공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량기업이 아닌 기업이 오히려 더 자발적 공시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기업들이 공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거론되었던 초기도입비용 문제를 금융감독원에서 상장법인이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XBRL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XBRL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비우량기업이 자발적 공시에 빨리 참여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기업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계정과목 체계가 복잡하여 XBRL의 선부른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XBRL을 조기에 도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XBRL을 도입한 미국의 SEC(증권거래위원회)의 경우 2005년 3월부터 2007년 12월말 현재까지 2년 10개월 이상 시험 가동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감안할 때⁹⁾, 금융감독원의 도입

시기와 시스템 체계가 완벽한 지 한 번쯤 염두에 두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자발적 공시에 참여한 표본기업의 수가 미비하여 표본수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XBRL을 기반으로 자발적 공시에 참여한 기업의 특성을 실증분석했다고 하기에는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표본수가 부족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 동안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XBRL을 기반으로 자발적 공시를 행한 기업의 특성을 실증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금융감독원의 DART 시스템에 공시를 하는 전체 상장회사와 차별화된 기업특성 변수인 기업의 지배구조변수를 대상으로 하여 XBRL의 도입목적인 회계투명성 제고와 정보비대칭 해소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실증분석해 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9) 금융감독원(2007), “상장기업 재무정보의 국제표준 보고방식(XBRL) 시행”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2007. “상장기업 재무정보의 국제표준 보고방식(XBRL) 시행” : 1-5.
- 김병호. 1996. “기업의 자산화정도(규모)와 기업이익발표 전후의 주식이격 변화 : 횡단면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 회계학연구 제21권 1호 : 67-91.
- 나영진. 2003. 「XBRL-의미와 관련 톨 현황」 : 삼성SDS IT REVIEW : 2-7
- 도상호. 2004. “XBRL의 도입과 효과”. 한국전산회계학회 춘계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55-61.
- 박선영. 2006. “XBRL의 도입효과 및 사례분석”.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용우. 2006. “XBRL도입이 정보비대칭과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화득 · 육근구. 2004. “분기보고의 시행과 반기 재무제표 공시의 정보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영학회, 경영연구 제19권 3호 : 241-266.
- XBRL KOREA. 2007. 한국 XBRL.
- Alsaeed, K. 2005. The Association between Firm-Specific Characteristics and Disclosure : The Case of Saudi Arabia.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Business*, Cambridge. 7(1) : 310-21.
- Baiman, Stanley., and Verrecchia, Robert E. 1996. The Relation among Capital Markets, Financial Disclosure, Production Efficiency, and Insider Trading.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Chicago : Spring 1996. Vol. 34(1) : 1-22.
- Botosan, C. A. 1997. Disclosure Level and the Cost of Equity Capital. *The Accounting Review* 20(3) : 421-39.
- Camfferman, K., and T. Cooke. 2002. An Analysis of Disclosure in Annual Reports of U.K. and Dutch Companies. *Journal of International Accounting* : 1-28.
- Cooke, T. E. 1989. Voluntary Corporate Disclosure by Swedish companies. *Journal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and Accounting*. 2 (Summer) : 113-24.
- Diamond, Douglas W., and Verrecchia, Robert E. 1991. Disclosure, Liquidity, and the Cost of Capital. *The Journal of Finance*. Cambridge. S Vol. 46, Iss. 4 : 1325-1359.
- Glosten, L., and P. Milgrom. 1985. Bid Ask and Transaction Prices in a Specialist Market with Heterogeneously Informed Trader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 71-100.
- Jensen, M., and W. Meckling. 1976. Theory of the Firm :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 : 305-60.
- Lang, M., and R. Lundholm. 1993. Cross-Sectional Determinants of Analyst Ratings of Corporate Disclosur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Autumn : 306-60.
- Malone, D., C. Fries, and T. Jones. 1993.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Extent of Corporate Financial Disclosure in the Oil and Gas Industry. *Journal of Accounting and Auditing and Finance*. 8 (Summer) : 249-73
- Ronald, F. Premuroso., and Som Bhattacharya. 2007. Do Early and Voluntary Filers of Financial Information in XBRL Format Signal Superior Corporate Governance and Operating Performance? *Working Paper* : 8-15.
- Singhvi, S., and H. B. Desai. 1971.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Quality of Corporate Financial Disclosure.

Accounting Review 46 : 621 – 32.

Wallace, R. S. O., and K. Naser. 1995. Firm Specific Determinants of the Comprehensiveness of Mandatory Disclosure in the Corporate Annual Reports of Firms Listed on the Stock Exchange of Hong Kong.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14 : 311 – 68.

Wallace, R. S. O., and K. Naser. and A. Mora.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rehensiveness of Corporate Annual Reports and Firm Characteristics in Spain.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25 (97) : 41 – 53.

Firm's Characteristics of the Voluntary Disclosure Based on XBRL

Lee, Jeong E* · Kim, Yi Bae** · Kim, Cheol Hwa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ies that made a voluntary disclosure based on XBRL. For that purpose, total 180 companies were analyzed which made a voluntary disclosure of their annual, quarterly and semi-annual reports to the DART system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based on XBRL from September 2006 to June 2007. The major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smaller they were, the more likely they were to make a voluntary disclosure based on XBRL. As a result, the small-sized companies must have judged that it would be better for their own good to provide their information to the market more actively since there were no extra expenses involved.

Second, the less profitable they were, the more likely they were to make a voluntary disclosure based on XBRL. The companies with a high profitability seem to have postponed their introduction considering that they could be more exposed to public investigations and forced to accept the increased measures of financial disclosure.

Third, the higher debt-equity ratio was, the more likely they were to make a voluntary disclosure based on XBRL. The companies with a high debt-equity ratio appeared to have decided to make a voluntary disclosure based on XBRL in order to reduce the auditing expenses, meet the needs of the creditors, and signal to the public securities market that they were capable of providing proper services according to the debt and contract conditions.

Finally, the companies' making a voluntary disclosure had nothing to do with whether they were audited by a big auditor or their liquidity.

In conclusion, the companies that were not robust seemed to have introduced XBRL earlier than the robust ones that were able to offer information to the market via a range of channels so that they could enhance their corporate images and actively provide the market with more information through an XBRL-based voluntary disclosure.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can be found in that it conducted an empirical research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ies that made a voluntary disclosure unlike the previous ones that

* Lecturer, Dept. of Tax Accounting, Ansan College

** Full-time Lecturer, College of Social Sciences, Duksung Women's University

*** Public Financial Director, HUBORO

theoretically dealt with the backgrounds and effects of the XBRL introduction.

But the number of the companies that made a voluntary disclosure based on XBRL was limited, which means cautions must be taken in interpreting the results and concluding that it verified the introduction effects of XBRL when companies made a voluntary disclosure of their financial statements based on it.

<Key words> XBRL, voluntary disclosure, size, current ratio, debt-equity ratio